



HOME > 수행&신행 > 수행&법문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지리산 가거든...자승스님 발원 “복 짓는 기도 합시다”

공 박봉영기자|이경민기자 | 승인 2021.10.04 10:51 | 호수 3686 | 댓글 0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나투신다는 지리산.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은 그 유명세와 무관하게 한결 같이 중생을 품어 왔다. 본래 지혜 지(智), 다름 이(異)를 쓰지만 문수보살의 다른 이름인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師利菩薩)’에서 지(智)와 리(利)를 따 지리산(智利山)으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백두산에서 이어진 줄기가 전북, 전남, 경북 23개 시도에 걸쳐 장대하게 솟아있고 섬진강과 엄천강, 경호강을 보듬고 있는 거대한 이 산은 인도 연기조사가 백제 때(544년) 화엄사를 건립, 화엄사상을 전파한 이후로 수많은 사찰과 수행자가 머무는 곳이 돼 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4일 순례 4일차 숙영지인 시암재 휴게소로 들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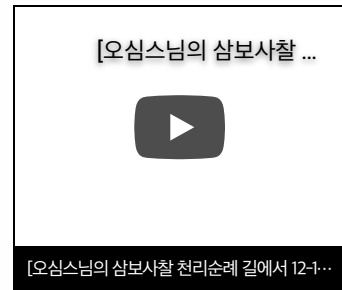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승광사를 시작으로 지난 3일 간 약 72km를 걸어온 천리순례단이 지리산 시암재를 향했다. 화엄사에서 천은사, 천은사에서 시암재로 오르막이 계속되는 만큼 오후의 땀 악별 아래 걷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날만큼은 출발 일정을 앞당겼다. 2시30분 새벽 예불을 마친 순례단은 화엄사 불이문을 떠나 천은사로 향했다.

천은사는 화엄사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힌다. 지리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사찰 가운데서도 밝고 따뜻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다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절 옆으로 펼쳐지면서 절경을 이룬다. 우람한 봉우리가 가람을 둘러싸고 있는 형세로 일주문을 지나 운치 가득한 수홍문을 건너면 지리산의 빼어난 산수와 함께 부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 절로 스며드는 곳이다.



불교신문TV

더보기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

포토뉴스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개막



색선별 최신기사

"SNS어 뉴스



불교신문TV

[오심

[오심스님의 삼보

많이 본 기사

- 1 [삼보사찰 천리
- 2 [삼보사찰 천리
- 3 [삼보사찰 천리
- 4 [삼보사찰 천리
- 5 [삼보사찰 천리
- 6 [삼보사찰 천리
- 7 [삼보사찰 천리
- 8 [삼보사찰 천리
- 9 조계사 불교대
- 10 [삼보사찰 천리



최신뉴스

- 해인사 '문화재관람
- "불교계 매도 정청리
- [삼보사찰 천리순례
- 영축총림 통도사, 13
- (사)경남파라미터청
- 영축문화재단, 제9회
- 선각자 '백성욱 박사
- 내 마음과 세상을 밝
- 목련존자 지극한 효
- 한옥목수의 촌집수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취지에 따라 순례단은 바쁜 일정에도 천은사 참배를 빼놓지 않았다. 상월선원 결사 회주 자승스님도 이날만큼은 적극적으로 불전함에 보시를 하고 앞장서 소원지를 썼다. 수홍문을 지나 극락보전 앞에 선 자승스님은 순례단과 함께 반야심경을 외고 “복 짓는 기도 합시다”하고 불전을 놓았다.

경내 팔상전 앞 복돼지바위(소원바위) 위에 조성된 포대화상에는 직접 소원지를 써 매달았다. 소원지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원만성취 발원’이라고 썼다. 뒤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이 ‘세계 5위 대학 동국대학교 발원’이라고 적었다. 자승스님과 성우스님 뒤를 따라 순례 참가자들도 잇달아 불전함에 보시하고 소원지를 적었다.



총도감 호산스님이 출발 전 입재식을 하고 있다.



새벽 천은사로 향하는 길. 선두에 선 자승스님이 보인다.

종단 “불교계 매도 정청래 의원 공개 사과” 촉구
전국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의미 왜곡 정정래...
사회&국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청래 의원 ‘...
인물 [본·말사 주지 인사] 2021년 9월 30일 중...
대중공사 [포교현장에서] 청년회의 또 다른 줄...
수행&신행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간장...
문화 은은한 차향에 담긴 '조계사 예불소리'의...
기획&연재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갈...
출판&문학 선각자 '백성옥 박사' 삶과 가르침...
학술&문화재 “이웃에게 큰마음 내는 게 수륙...
복지&상담 “수제 비누와 삼푸, 이웃과 나눠요”

대한불교조
불교전문사

www.

02)2

법공양 (기획PR)





순례 중 발바닥 물집을 살피고 있는 스님.



순례단은 이날 예정된 식사 대신 계란과 바나나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다. 아침 공양 전 오관계를 외고 있는 자승스님과 동명스님.



천은사 수홍문에서 자승스님이 천은사 주지 대진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술선수법으로 천은사에서 축원 접수를 하는 자승스님.



천은사 극락보전 앞에서 부처님 전에 예경하는 순례단.

순례단을 위해 정성껏 아침 공양을 준비했던 천은사 주지 대진스님은 촉박한 일정으로 순례단이 공양을 건너뛰자 아쉬움이 가득했다. 대진스님은 순례 입재부터 회향까지 교통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대진스님은 “천리순례단의 뜻 깊은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공덕으로 천은사가 더 발전하고 종단 중심 도량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어머니 품 같은 지리산의 넉넉함 속에서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은사에서 시암재로 오르는 길은 엄두가 안 날 만큼 까마득했다. 회향지로 지정된 시암재 휴게소까지는 약12km로 평지와 달리 심한 급경사와 굽이굽이 반복되는 곳이다. 이번 순례 난코스로 꼽히는 구간. 순례단 눈 앞에 시암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지만 굽이굽이 가파른 길을 돌고 나면 또 다시 오르막이 반복됐다.

중간 휴식 지점을 지나 한참을 오르던 순례단은 예정보다 한차례 더 휴식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서로 “화이팅”을 외치며 힘을 북돋는 순례단 속에서 백두대간 중주를 했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보통 신심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천리순례단은 이날 시암재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6일차인 10월5일 고도 1079m에 이르는 성삼재까지 26km를 걷는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천은사 불전함에 불전을 놓고 있다.



자승스님이 소원지에 '상월선원 108순례 원만 회향 발원'이라고 적고 있다.



굽이굽이 경사진 시암재를 오르는 순례단.



잠시 쉬어 가는 길. 쉬는 것도 수행의 하나다.



오르막길과 급이길이 계속되자 지친 가객이 역력하다.



시암재를 오르는 순례단 뒷모습.



상월선원 천리순례가 4일차를 지나고 있다.

구례=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진=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저작권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봉영 기자 | 이경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3일차] 안개 자욱한 섬진강 따...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② 사찰 참배하며...무...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② 삼보의 의미를 다시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특집] 한국불교 중흥 위한 첫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① 청매선사 깨달음 얻...
- ▶ [삼보사찰 천리순례 7일차] 조금만 더 가자...응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② 순례단 찾은 총무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 ▶ [영상]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한국불교 중흥...
- ▶ [삼보사찰 천리순례 2일차] ① 함께 걷는 길, 자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일차] ① 한국불교 새 운동.....
- ▶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 힘들어도 자비의 꽃은 ...
- ▶ [삼보사찰 천리순례 6일차] ② 자승스님 실상사 참...
- ▶ [삼보사찰 천리순례 8일차] ① 견디고 참고 기다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9일차] 가야산에 이르러 해안...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떨과 평생 한번뿐...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신문사소개](#) [광고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D**